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삼위일체〉, 엘 그레코,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스페인

**[제1독서]** ..... 탈출 34,4ㄱ-6,8-9

**[화답송]** ..... 다니 3,52ㄱ.52ㄴ.53,54,55,56  
(◎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2코린 13,11-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복음]** ..... 요한 3,16-1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81] 영광의 주 성삼위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154] 주여 어서 오소서
- 파견성가: [80] 거룩하신 성삼이여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sup>16</sup>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sup>17</sup>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sup>18</sup>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 성심 공경은 중세 때부터 내려왔는데, 1856년 비오 9세 교황이 이를 권장하면서 예수 성심 축일을 전례력에 도입하였고, 1956년 비오 12세 교황이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회칙을 반포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비오 12세 교황은 이 회칙에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교의 실질적인 신앙 고백 그 전부이다.”라고 하였다. 예수 성심 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시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다.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특별히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복음 묵상

제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교우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어머니를 꼭 빼닮으셨어요.” 저는 이 두 분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닮으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닮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을 함께 책임지며 살아가는 동안 습관, 식성,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제 부모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당 주임 신부 시절, 수많은 부부를 바라보며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서로 닮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께서서는 영원무궁토록 무한한 사랑을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 위격은 서로의 존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였듯이 사랑은 본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잘 간직하도록 애써 줍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일치하시는 가운데서도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사랑의 신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에 처한 인류를 위해 자비의 증거자들로서 더 깊은 일치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기도운동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국 성공회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를 위한 영상 메시지를 마련했다.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알아듣고 받아들여 일치를 이룬 일을 기념한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 2016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Thy Kingdom Come)'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특별한 시간을 나누도록 초대하는 바 있다. 교황은 이번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위해 자비의 증거자들로서 더 깊은 일치를 이루길” 기도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일치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하느님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게” 하신 일과 최근 전 세계를 할퀴 코로나19 사태를 대조해서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하느님의 친밀함인 성령이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증”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용기를 북돋는 온화한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했다.

교황은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최초의 성령 강림 대축일에 베드로 사도가 권고했던 '회개'에 관한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황은 우리가 지금껏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우리 지구의 황폐화 앞에 무감각”하게 대처해 왔다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기도운동을 위해 영상 메시지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교황과 웰비 대주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산타 마르타의 집' 남수단 고위 당국자 및 교회 지도자를 위한 영성 피정 일정 당시, 웰비 대주교는 교황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녹화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다.

## 영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님, 여러분과 함께 제 진심 어린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권능으로 내려오심을 기념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하느님의 생명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이날 하느님은 온 세상을 생명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이 땅을 할퀴었던 죽음의 전염병과 얼마나 다른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사랑이신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길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서로 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필수 조치들을 준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쩌면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하나되게 한 것입니다. 상처입은 불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바라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성령을 일컬어 **파라클리토(Paraclete)**, 곧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내적 평화**이며, **항상 용기를 북돋는 온화한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느님이 우리를 지탱하심을 보증**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 곧 하느님의 친밀하심을 나누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많은 것들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위로, 격려, 나를 보살펴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줄 누군가, 나와 함께 울고 내가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 주길 바라는 그대로 우리도 남에게 해 줍시다**(마태 7,12 참조).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먼저 격려해줍시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핍시다. 내일을 위한 희망이 필요합니까? 그럼 오늘 내가 먼저 희망을 나눕시다. 지금 세계는 '희망의 기근'이라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 공허, 위로할 길 없는 슬픔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위로의 전달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희망의 빛을 발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여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에 처한 인류를 위해 자비의 증거자들로서 더 깊은 일치로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치 선물은 허락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만 형제애의 정신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일치를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느낍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선한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시기 어렵고 시급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길, 그들이 인간 생명과 노동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도와주시길 성령께 청합니다. 우리는 보건, 고용, 불평등 및 빈곤 해소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애적 가치로 충만한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뒤쳐진 이들을 무시하고 성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던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비록 많은 이가 그 길로 들어설 지라도, 너희는 방향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힘입은 담대한 용기**(파레시아, parrhesia)로 "회개하십시오"(사도 2,38)라고 말하며, 모든 이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길을 틀어 하느님께로, 우리 이웃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우리 지구의 황폐화 앞에 무감각하게 동떨어져 있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굶주림, 전쟁, 생명 경시, 무관심의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 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희망의 표징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분의 축복을 빌어주시시오. 고맙습니다.



# A Present *from* God



SPC SUNDAY SCHOOL

## The Bible Reading & Bible Writing event

Sunday School is hosting 'The Bible Reading' and 'The Bible Writing' event.

Due to unfortunate circumstances, we have had to put our education of the faith on hold. Now, we invite our Sunday School Students to join our "Bible Reading" and "Bible Writing" events to rebuild our faith. We encourage all of our students to participate and hope this opportunity brings them closer to God.

### Reading The Bible

- 1 **Participants:** Kindergarten - 1<sup>st</sup> Grade
- 2 **Method:** Read along with your parents following the "Bible Reading Table" and submit a completed reading table.
- 3 **Order of the Bible text:** Refer to the Bible Reading Table and the Bible Reading Recommendation Sequence Table.

### Writing The Bible

- 1 **Participants:** 2<sup>nd</sup> Grade - 8<sup>th</sup> Grade
- 2 **Method:** Transcribe the Bible according to the "Bible Writing Table", write as much as you want in a notebook, and submit your work.
- 3 **Order of the Bible text:** Refer to the Bible Reading Table and the Bible Reading Recommendation Sequence Table of the New Testament.

### Competition Period

- Submit your completed Reading Table or Writing notebook by **August 30<sup>th</sup>, 2020**

### How To Participate

- 1 Participate by reading and writing according to your "Bible Reading Table" created and distributed by Sunday School.
- 2 Read or write the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Acts. Afterwards, follow the "Recommendation Sequence for Reading the New Testament" as you wish to continue.
- 3 You can choose the following Bibles:
  - Korean:** The Bible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 English:** - New American Bible
    - The Catholic Bible for Children\*
    - My Picture Book of the Bible\*, etc.

\*Reference: Ignatius Press (<https://www.ignatius.com>)

\*The Bible Reading Table and New Testament Reading Order Table have been sent by mail to the homes of all Sunday School Students. However, only those who are registered with the Sunday School with a proper mailing address. If you did not receive this mail and would like to participate, please contact your CCD teachers.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



주일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멈췄던 신앙교육의 장을 성경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 ① 대상 : **킨더가든-1학년**
- ② 방법 : '성경 읽기표'에 따라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읽고 완성된 읽기표 제출
- ③ 성경 본문의 순서 : '성경 읽기표'와 '성경 읽기 추천 순서표' 참조

**성경 쓰기**

- ① 대상 : **2학년-8학년**
- ② 방법 : '성경 쓰기 순서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필사하여 제출
- ③ 성경 본문의 순서 : '성경 읽기표'와 '성경 읽기 추천 순서표' 참조

**대회 기간**

8월 30일까지 완성된 '성경 읽기표' 혹은 '필사한 성경' 제출

**참여 방법**

- ① 주일학교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성경 읽기표'를 참조하여 읽기와 쓰기에 참여합니다.
- ②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거나 씁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을 모두 읽거나 쓴 뒤에는 '신약 성경 읽기 추천 순서표'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과 같은 성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한글 : 「성경」,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발행

나. 영문(English) : 「New American Bible」

「The Catholic Bible for Children」\*

「My Picture Book of the Bible」\*, etc.

\*참조 : Ignatius press (<https://www.ignatius.com>)

※ '성경 읽기표', '신약 성경 읽기 추천 순서표'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단, 주일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우편 주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우편을 받지 못하였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주일학교 각 학년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한 방역과 환기를 위해서 입니다.)

###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미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고 11일에 참여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시범으로 운영하는 미사를 통해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 (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11일(목) 오후 5:00-6:00

6월 12일(금) 저녁 8:00-9:00

6월 14일(일) 오전 6:00-7:00

•특집:

그 풍성한 생명의 식탁 - 한국 수도원 음식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6월 10일(수) 오전 6:15-6:45 | 6월 13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위대한 성인’ (11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